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 전시회' 연계 <독도포럼>

바람직한 독도 교육의 방안

-독도연구와 교육의 상호소통을 위하여-



| 일시 | 2011. 7. 22(금) 10:00~17:00

| 장소 | 전쟁기념관 2F 전시실 교육장

|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동북아역사재단,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 주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후원 | 한국연구재단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와 독도문제

박명섭

(일본 竹島=獨島問題研究넷)

1. 들어가며

일본의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 (요령서 라고 약칭)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 (해설서 라고 약칭)에 따라 각 출판사가 4년마다 제작하여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는다. 요령서 및 해설서는 10년마다 개정되는데, 최근에는 2008년에 소학교 및 중학교, 2009년에 고등학교 용이 개정되었다.

2008년에 중학교 용 해설서가 개정됐을 때, 독도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한·일 양국에서 외교문제로 되고, 양국 정상회담에서까지 논의되었다. 이 뉴스를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를 2008년 7월 15일에 보도하였다. 이는 요미우리 신문의 오보였다는 것이다.

신 요령서 및 해설서에 따른 교과서 신청 및 검정이 소학교는 2009년도에, 중학교는 2010년도에 실시됐으며, 고등학교는 2011년도에 실시 중이다. 여기에 말하는 '년도'는 4월에 시작하고 다음 해 3월에 마친다.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공립학교의 경우, 다음 연도에 약 500개의 각 채택구(採擇區)마다 통일된 교과서의 채택이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채택구는 시마네현의 경우 마쓰에(松江), 이즈모(出雲), 하마다(濱田), 마쓰다(益田), 오키(隱岐)의 5개 구로 나누어져 있다. 채택이 결정되면 그 다음 연도부터 4년 이상 같은 종류의 교과서가 계속해서 사용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검정, 채택, 사용 개시의 일정표는 표1과 같다.

본고는 신 요령서 및 해설서가 독도문제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중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검정이 2000년도, 2004년도, 2008년도, 2010년도에 실시됐다. 단 2008년도에는 후소사에서 분열된 자유사(自由社)의 역사 교과서 1종류 만이 검정을 신청했다. 이는 신 요령서에 따른 검정이 2년 후에 실시되므로 자유사 외는 검정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행 중학교 교과서는 2006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계속해 사용된다.

<표1> 교과서 검정·채택·사용 주기

◎: 검정 △: 채택 ○: 사용개시

학교종별 구분	연도(서기)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학교	검정	◎			◎				(◎)	新	◎		
	채택		△			△				(△)		△	
	사용개시	○		○			○				(○)		○
중학교	검정	◎				◎			1社→	→◎		◎	
	채택	△	△				△			新	△		△
	사용개시		○	○				○				○	
고등학교	주요 저학년용	검정		◎				◎			◎		◎
		채택			△			△			新	△	
		사용개시				○			○				○
	주요 중학년용	검정			◎				◎				◎
		채택				△			△				△
		사용개시					○			○			
	주요 고학년용	검정				◎				◎			◎
		채택					△				△		
		사용개시	○					○				○	

주1: 굵은 선 이후는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의 교육과정의 실시에 따른 교과서에 관한 것이다.

독도에 직접 관계되는 규정은 요령서에는 없고, 개정된 해설서 중 사회과 지리분야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적 분야], p.49
 (요령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착목시키도록 한다’(내용의 취급)고 되어있으나,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해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해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우리나라와한국사이에竹島에대한주장에차이가있다는점등에대해서도취급, 북방영토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밑줄은 개정된 부분)

문부과학성은 독도도 북방영토(남 크릴열도)와 같이 일본의 고유영토이지만 한국에 의해 점거되고 있으며,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지시한 것이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 사이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을 취급하라고 지시하였다.

신 요령서의 영향은 2012년 4월부터 사용되는 사회과 교과서에 반영됐다. 그 결과는 표2 ‘공민’, 표3 ‘지리’, 표3B ‘지도’, 표4 ‘역사’와 같다. 이 표 등에서 신 해설서의 영향을 질적인 영향과 양적인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먼저 양적인 영향인데 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유는 현행 교과서의 대부분이 이미 독도를 일본영토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민 교과서에서는 발간된 1,232,000권 중 81.9%의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고 있으니, 중학생의 81.9%가 교과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배우고 있는 셈이 된다. 나머지 18.1% 중학생 중 37.8%, 즉 전 중학생 중 6.8%는 지리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배우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전

중학생 중 88.7%가 이미 2006년부터 독도를 일본 땅으로 배우고 있다. 게다가 모든 중학생이 지도 교과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모든 중학생이 지리 및 공민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배우게 된다.

다음은 질적인 영향인데 이는 큰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공민 및 지리 교과서에서 살펴본다.

(1) 공민 교과서

신 해설서는 지리 교과서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영향은 공민 교과서에도 크게 미쳤다. 데이코쿠쇼잉(帝國書院) 외의 모든 교과서가 영향을 받았다. 특히 공민 교과서에서 시장 점유율 61.1%를 차지하는 도쿄쇼세키(東京書籍)의 영향은 컸다. 현행 東京書籍 교과서는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라고 간단히 썼는데, 신 교과서는 이에 더하여 독도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일본은 한국에게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글의 근거는 외무성의 홍보 팸플릿 ‘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에 있다. 거기에는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고 쓰고 있다.

외무성의 홍보 팸플릿의 영향은 시미즈쇼잉(清水書院)의 신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으며, “竹島는 어채지로 17세기 중엽에는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쓰고 있다. 또한 외무성의 영향은 우익계인 이쿠호샤(育鵬社) 및 자유사(自由社)의 교과서에서는 아주 강하다. 育鵬社는 외무성 팸플릿의 글을 직접 인용해, “한국에 의한 竹島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우리나라는 엄중히 항의를 거듭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한국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고 적었다. 게다가, 시마네현의 ‘竹島의 날’도 설명하고 있다.1)

이보다 더 과격한 것이 自由社 교과서이다. 이 회사의 교과서는 ‘고유영토’, ‘불법점거’는 물론, ‘에도시대 때의 일본인의 어업’, ‘1905년 영토편입’,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승만 라인’, ‘한국의 연안경비대’,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 제의’ 등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영유권에 관한 세 가지 주장 및 이에 대한 반론도 소개하고 있다.2) 이 회사는 장차 영토문제에 관한 부교재를 작성한다고 한다. 그런데 自由

1) 育鵬社 신 교과서의 기술

북방영토, 일본해상의 竹島는 각각 러시아와 한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입니다. 해양국가인 일본으로서 이들 에너지 자원 및 어업자원의 확보와 안전조업 등의 차원에서 영토문제 해결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p.157)

시마네현 오키제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1954년부터 “한국에 의한 竹島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우리나라는 엄중히 항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기”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한국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무성 홈페이지 인용) (p.157)·사진(p.4) 일본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竹島. 시마네현에서는 1905년 2월 22일 현 지사가 섬의 소속을 확실하게 고시한 지 100주년이 되는 2005년에 이 날을 ‘竹島의 날’로 정하였다.

2) 自由社의 신 교과서의 기술

社 교과서는 요령서가 말하듯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竹島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그 나름대로 쓰고 있다. 이처럼 양국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기술은 교이쿠쇼판(教育出版)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교과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 영유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어,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고 썼으며,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또한, 니혼쇼교판(日本文教出版)도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2) 지리, 지도 교과서

지리 교과서는 모든 회사가 영향을 받았다. 현행 교과서는 帝國書院 교과서가 “일본에는 竹島, 센카쿠 제도 등 이도(離島)등이 있습니다” 라고 썼을 정도인데, 신 교과서는 日本文教出版 외는 모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썼다. 日本文教出版만이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쓰지 않았다.

이 회사의 지리 교과서는 독도를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1952년부터 한국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고 썼으며, 한국이 평화선 선포 때부터 독도를 한국영토로 주장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설명인데 帝國書院은 “한국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고 썼으니 문제는 적지만, 東京書籍은 “한국이 점거하고 있어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고 쓰고 한국의 불법성을 암시하였다. 더 심한 예로 教育出版은 “1952년 이후 한국정부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고 쓰고 ‘불법점거’를 강조하였다. 이 글은 외무성 팸플릿에서 인용한 것이다.

한편, 지도 교과서는 여전히 독도를 일본영토로 지도를 그리고 있다(표3B).

우리나라에는 북방영토문제, 竹島문제 등 2개의 중대한 영토문제가 있는데, 모두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러시아와 한국이 불법으로 각각 점거하고 있습니다.(p.145) 竹島 한국이 점령 중(p.149)

<에도시대부터 우리나라가 영유> 竹島는 대나무가 무성했던 섬으로 사람은 살 수 없지만 주변은 해류의 영향으로 풍부한 어장이 되고 있다. 에도시대에는 돛토리번의 사람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어업을 행했다. 1905(메이지38)년,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로 하고 시마네현에 편입, 이후 실효지배를 해왔다. 전후에는 일본영토를 확정된 국제법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영토로 확인되었다.

<실력으로 점거> 그러나 대일강화조약이 발표되기 직전에 한국 이승만 정권은 일방적으로 일본해에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여, 竹島를 자국령으로 편입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하는 일본 어선에 충격, 나포, 억류 등을 실시했다. 1954년에는 연안경비대를 파견하고, 竹島를 실력으로 점거했다. 현재도 경비대원을 상주시켜 실력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견해> 한국이 竹島의 영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①竹島는 한국명 독도로, 고유의 영토이다, ②일본은 힘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했다, ③GHQ의 지령으로 한국영토로 간주되고 있었다 등을 들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①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독도와 竹島는 다른 섬이라는 것은 역사 문헌으로도 명백하고, 다른 2개의 주장은 사실과 국제법에 비추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54년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3) 역사 교과서

현행 역사 교과서는 독도와 무관하지만, 신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쓴 교과서가 나타났다. 教育出版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썼다. 그러나 教育出版은 신 해설서에 따르던 것인지, “한국과의 사이에 그 영유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어,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기타 교과서는 育鵬社, 自由社를 비롯해 독도에 관한 기술이 없다.

<표2> 공민 교과서의 변화 (중학교)

1,232,000원

교과서 회사	점유율 (%)	독도	현행 내용 (2006.4-2012.3)	신 교과서 (2012.4 이후)	영향
東京書籍	61.6	○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북서에 위치한 竹島, 오키나와 사키시마제도의 북쪽에 위치한 센카쿠제도는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竹島는 오키제도 서북쪽에 위치하고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일본은 한국에게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 竹島를 일본영토	○
日本文教出版 (旧大阪書籍)	13.6	○	시마네현 앞 바다의 竹島는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도) 竹島를 일본영토	시마네현 앞바다의 竹島는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竹島, 센카쿠제도 주변도 수산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도) 竹島를 일본영토	○
教育出版	11.5	—		북방영토 외에 일본해에 위치한 竹島(시마네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 영유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어,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지도) 竹島를 일본영토	○
帝國書院	6.1	○	(지도) 竹島를 일본영토	(지도) 竹島를 일본영토	-
清水書院	3.8	—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북서쪽에 있는 竹島는 어채지로 17세기 중엽에는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일본의 관할지라는 것을 확인받은 고유의 영토이지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이 섬을 점거하고 있다. (지도) 竹島를 일본영토	○
扶桑社(현행) 育鵬社(신)	1.1	○	(사진설명)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다케시마 (본문) 각각 러시아, 한국, 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일부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들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이다	내용은 별기	○
自由社			(신규)	내용은 별기	-
日本文教出版	1.5	—		검정 불허	
日本書籍新社	1.8	—		(신청 없음)	

○: 현행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땅, △: 불분명, —: 쓰지 않음. 현행교과서의 81.9%는 독도를 일본땅으로 쓰고 있음.

<표3> 지리교과서의 변화 (중학교)

1,250,000권

교과서 회사	점유율 (%)	독도	현행내용 (2006.4-2012.3)	신 교과서 (2012.4 이후)	영향
東京書籍	42.6	△	(경제수역도뿐)	일본해상의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점거하고 있어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도) 竹島를 일본영토	○
帝國書院	35.2	○	동서남북 끝 외에도 일본에는 竹島, 센카쿠 제도 등 이도 등이 있습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竹島(시마네현)에 대해서도 한국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竹島를 일본영토	○
日本文教出版 (旧大阪書籍)	10.1	△	(국경선뿐)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竹島는... 1952년부터 한국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도) 竹島를 일본영토	○
教育出版	9.7	△	(국경선뿐)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도 시마네현의 竹島를 둘러싼 영토문제가 있습니다. 竹島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로 1905년부터 시마네현의 일부가 된 섬이나, 1952년 이후 한국정부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 竹島를 일본영토	○
日本文教出版	0.4	△	(경제수역도뿐)	검정불허	
日本書籍新社	2.6	○	(지도에서 竹島를 일본영토로 표기)	(신청 없음)	

○: 현행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땅, △: 불분명, -: 쓰지 않음.
현행교과서의 37.8%는 독도를 일본땅으로 쓰고 있음.

<표3B> 지도 교과서의 변화

1,252,000권

교과서회사	점유율 (%)	독도	현행내용 (2006.4-2012.3)	신 교과서 (2012.4 이후)	영향
帝國書院	94.1	○	竹島를 일본영토로 표시.	좌기와 같음.	-
東京書籍	5.9	○	竹島를 일본영토로 표시.	좌기와 같음.	-

<표4> 역사 교과서의 변화 (중학교)

1,248,000권

교과서 회사	점유율 (%)	독도	현행내용(2006.4-2012.3)	신 교과서 (2012.4 이후)	영향
東京書籍	50.5	-	-	-	-
日本文教出版 (旧大阪書籍)	15.6	-	-	(지도에 국경선이 있지만 竹島の 이름이 없음)	-

帝國書院	14.0	△	(지도에 竹島가 있으나 국경선이 없음)	(좌기와 같음)	-
教育出版	11.8	-	-	북방영토와 함께 竹島와 센카쿠제도도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해에 위치하는 竹島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그 영유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어,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
清水書院	2.4	-	-	-	-
扶桑社(현행) 育鵬社(신)	0.6	-	-	-	-
自由社	1.1	-	-	-	-
日本書籍新社	3.1	-	-	(신청 없음)	
日本文教出版	1.4	-	-	검정 불허	

○: 현행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땅, △: 불분명, -: 쓰지 않음.

2. 소학교 교과서

2008년에 소학교의 요령서 및 해설서가 개정됐지만, 이는 거의 한국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 왜냐 하면 요령서 및 해설서 안에 독도의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해설서에 근거해 검정을 통과한 신 교과서가 2010년 3월에 발표되자, 한국을 놀라게 하였다. 독도를 다룬 교과서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원인은 역시 요령서 및 해설서에 있다. 거기에 竹島라는 글은 없어도 영토에 관한 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설서에 새로 추가된 영토 관련 글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토’를 살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토를 구성하는 北海道, 本州, 四國, 九州, 沖繩島, 북방영토 등의 주된 섬의 명칭과 위치, 우리나라 영토의 북단, 남단, 동단, 서단, 일본열도 주변의 바다를 가지고 지도 책이나 지구의 등에서 구체적으로 살피고, 백지도 등에 쓸 것으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영토에 관해서는 북방영토문제도 다루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齒舞群島, 色丹島, 國後島, 擇捉島가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는 것이나, 우리나라는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관해 다루도록 한다.

이 해설서에 독도라는 글은 없지만, 일본 ‘영토의 북단, 남단, 동단, 서단’을 밝힌다면 독도도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2010년까지는 독도를 확실히 일본영토로 쓴 교과서는 日本文教出版뿐이었는데, 2011년 4월부터는 教育出版과 고무라도쇼샤판(光村図書出版)도 지도에서 竹島를 일본영토로 표시하게 되었다. 이들 3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합쳐서 32.6%(2009년)이다. 또한, 신 요령서 및 해설서의 영향을 받은 책은 28.5%로 된다(표6). 지도 교과서는 변함이 없다. 여전히 독도를 일본영토로 그리고 있다(표6B).

<표6> 사회과 교과서의 변화 (소학교 5학년)

교과서 회사	점유율 %('09)	독도	현행 내용('05.4-'11.3)	신 교과서 ('11.4 이후)	영향
東京書籍	49.8	△	지도에 국경선뿐	좌기와 같음.	-
教育出版	25.9	-		지도에서 竹島를 일본영토로 표시.	○
日本文教出版 (旧大阪書籍)	17.7	△	지도에 국경선뿐	좌기와 같음.	-
日本文教出版	4.0	○	시마네현에 속하는 竹島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좌기와 같음.	-
光村圖書出版	2.6	-		지도에서 竹島를 일본영토로 표시.	○

<표6B> 지도교과서의 변화 (소학교)

1,209,690권

교과서 회사	점유율 %('08)	현행 내용('05.4-'11.3)	신 교과서 ('11.4 이후)	영향
東京書籍	5.8	○ 竹島를 일본영토로 표시.	좌기와 같음.	-
帝國書院	94.2	○ 竹島를 일본영토로 표시.	좌기와 같음.	-

4. 교과서문제 해결의 길

일본에서 중학생은 2006년부터 양적으로는 89%가 교과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배워 왔다. 2012년 4월부터는 신 '해설서'의 영향을 받아, 질적으로 독도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 중학생들은 주로 공민 교과서를 통해 간단히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배우고 있지만, 2012년부터는 지리 교과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 "17세기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 등등 식으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교과서는 적어도 4년간은 그대로 쓰게 된다.

또한, 2012년 3월에는 신 '해설서'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발표되는데, 독도 교육이 대폭 강화될 것은 틀림없다. 차세대를 짊어지는 학생들이 이런 잘못된 독도 교육을 받는다면, 장차 독도문제의 해결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사태에 대처해, 단지 일본에 대해 비난이나 항의를 거듭해도 문제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일 양 국민이 독도문제의 진실을 바로 이해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그릇된 인식을 벌이게 할 방도를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릇된 인식을 가진 일본인과의 대화가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좀처럼 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국은 독도문제는 일본과 논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인과의 논쟁을 피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일본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이런 방향을 전환하고, 모든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일본인과의 논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앞으로 한일 정부간에서 열릴지 모르는

제3차 '한일역사공동연구'의 자리다. 이 공동연구의 성과는 교과서에 반영시킬 수 있으므로, 교과서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차 공동연구는 2010년 3월에 끝났는데, 그 3년 전에 공동연구가 시작됐을 때, 제3분과회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독도문제를 다루자는 제안이 있었다. 한국 측은 독도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독도문제를 다룬다면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양국간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한다. 한편, 4-5년 전 당시의 한국의 독도 연구 수준을 보면, 약점도 보인다. 이 약점을 노리고 일본의외무성이 홍보 팸플릿 '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를 만들었다. 물론 일본의외무성의 비판이 다 옳다고 볼 수 없지만, 귀를 기울여야 할 비판도 있는 듯하다. 이런 약점이 한국 측에 있었으니, 4, 5년 전에 일본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독도연구도 진전되고 한국 측의 약점은 거의 극복되어 왔으니, 앞으로 열린다고 예상되는 제3차 '한일역사공동연구'에서 독도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 공동연구의 성과는 공개되므로, 일본의 그릇된 독도 인식을 일본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으며, 연구 성과를 교과서에 반영시킬 수도 있다. 즉 그릇된 교과서의 기술을 수정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여간 교과서문제 해결의 길은 제3차 '한일역사공동연구'밖에 없다고 사료된다.